전진'95 : 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

석유화학의 클라이막스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호황에 들어선 지 불과 1년여의 기간이 흘렀다. 톤당 400달러 안팎을 헤메던 합성수지 가격이 1000달러를 넘어서고 80%를 밑돌던 공장가동률이 100%를 넘어섰다.

이러한 시세 반전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사람도 없었다. 94년 하반기이후 약상승을 예견하기는 했었다. 즉, 석유화학제품의 공급과잉이 품목에 따라서는 20%를 넘었고, 상황이 호전된다 해도 큰 폭의 가격상승을 예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예측은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그것은 세계경기의 호전 뿐만 아니라 무리한 가동에 따른 공장트러블, 일본 석유화학산업의 위축 등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수요의 급격한 증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공장트러블, 예측이 빗나간 중국의 대량 수입 등등 한마디로 예측불가능의 현상이 연속된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경기의 흐름이 하향곡선을 걷기 시작하고, 지나친 가격상승에 대한 경계심이 팽배한 지금, 현재의 석유화학 호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락세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검토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상승곡선이 예측을 빗나갔듯이, 하향곡선 또한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흔히 국내 석유화학 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은 호황국면이 오는 1997년까지 이어져 최소한 2년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도 호황세가 계속되고 있고, 세계 및 국내경기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세계 유수의 전문기관들은 이미 세계경기가 하향국면에 접어들었고, 선진국의 수요가 정점에 달해-큰 전쟁이나 여러곳의 국지전이 지속되고 있지 않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음-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최근의 석유화학제품 가격상승곡선은 실제적인 수요증가 및 공급부족에 연유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재기」에 연유한 바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각국의 신증설이 계속되었고, 동남아·중국의 수요도 한계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정정이 혼미해질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우리가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는 틈에, 석유화학의 불황이 어느새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지나 않을는지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참고로 일본의 유력지인 일본경제신문의 보도내용을 소개한다.

『폴리올레핀·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국제시세가 천정감(클라이막스)에 달한 느낌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경기의 감속으로 미국·유럽시장에서의 수급타이트현상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메탄올 가격은 연초대비 50%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아시아에서도 수요확대가 계속되고 있으나 PVC 등을 중심으로 고가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석유화학제품 시황도 국제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국제가격의 조정국면이 계속될 경우 일본내 가격인상 교섭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유럽에서 개인소비의 둔화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조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의 HDPE 5월분 계약가격이 톤당 1111달러로 4월에 비해 4% 하락했다. 메탄올 가격도 2월 94년의 3배이상으로 상승했으나 최근 200달러수준으로 급락해 94년 여름수준으로 복귀했다. 유럽에서도 폴리에틸렌의 가격하락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도 필름 및 파이프용 PVC가격의 지표가 되는 홍콩의 5월선적 수출가격이 C&F기준 1110~1150달러에 머물러 급등세에 제동이 걸려 있고, TPA 등 합섬원료가격도 중국의 가격급등에 따른 구매기피로 상승세가 한풀 꺽일 전망이다. 일본의 석유화학기업들은 94년 초부터 가격인상에 착수해 주요제품가격이 4년만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들어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이것은 미국·유럽의 석유화학메이커들이 내수둔화로 생긴 수출여력을 아시아시장으로 유입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폴리에틸렌의 경우 이미 미국기업들이 동남아 수요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수출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동남아의 석유화학제품 수급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석유화학의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될 기미가 보인다는 경계심이다.

일본의 상황판단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석유화학시세의 하향곡선 예감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화학저널 1995/6/19>